

올들어 3승 1패...광주도시공사 핸드볼 '새해 출발 좋아!'

3연승 후 SK에 아쉬운 패배 강경민·김지현 등 골고루 활약 올해 위기 관리·집중력 뛰어난 창단 후 사상 첫 리그 6승도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이 새해 들어 3연승을 달성했다. 10일 SK전에서 패했지만 앞서 3연승을 거뒀고 2010년 창단 이후 최초로 리그 6승이라는 신기록을 작성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이날 청주 SK호크스아레나에서 열린 2020~2021 SK핸드볼코리아리그 SK슈가글라이더즈전에서 27-29로 패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이날 패배로 승점 15점(6승3무4패)으로 리그 3위에서 4위로 순위가 한단계 내려갔다. 광주도시공사는 SK와 1.2점차 간격으로 동점과 역전을 반복하는 등 박빙의 승부를 펼쳤다. 강경민과 김지현이 각각 9골과 6골을 넣으며 공격을 이끌었으나 결정적인 득점전에서 끝은 이

르지 않았다. 광주도시공사는 8일 경남개발공사와 경기에서 33-32, 1점차로 승리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이날 경기에서 2010년 창단 이래 첫 리그 6승을 기록했다. 이날 SK슈가글라이더즈가 삼척시청에 24-26으로 패하면서 광주도시공사와 SK슈가글라이더즈의 승점은 15점으로 같았으나, 광주도시공사가 골득실(광주29, SK25)에서 앞서 3위에 올랐다. 광주도시공사는 경남개발공사와 시종 팽팽한 접전을 벌였다. 광주도시공사는 1점차 리드, 동점 상황을 거듭했으나 역전을 허용하지 않는 탄탄한 전력을 선보였다. 선수들의 위기 관리능력과 집중력이 모처럼 빛난 경기였다. 강경민의 공격력이 살아나면서 승부가 갈렸다. 강경민은 여는 경기와 달리 전반전 3골로 부진했다. 하지만 후반전 7골을 터뜨리며 에이스의 면모를 보였다. 김지현은 5골을 성공시키며, 전반전 강경민의 부진을 대신했다. 김지현은 전후반 통틀어 7골 5도움으로 맹활약, 경기 MVP에 선정됐다. 한승미(5골), 서아루·정현희(4골), 원선필(3골)도 꾸준히 골을 터뜨렸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이 지난 8일 청주 SK호크스아레나에서 열린 2020~2021 SK핸드볼코리아리그 2라운드 경남개발공사전에서 공격을 하고 있다. <광주시핸드볼협회 제공>

한나래 “호주오픈 테니스 2년 연속 본선 가자~”

예선 1회전에서 그라버와 대결

2년 연속 호주오픈 테니스 여자 단식 본선 진출에 도전하는 한나래(204위·사진)가 예선 1회전에서 율리아 그라버(227위·오스트리아)와 만나게 됐다. 한나래는 9일(한국시간) 진행된 올해 호주오픈 테니스대회 여자 단식 예선 대진 추첨 결과, 대회 1회전에서 그라버를 상대하고 이길 경우 츠베타나 피통코바(136위·불가리아)-오카무라 교카(238위·일본) 경기 승자와 만난다. 한나래의 1회전 상대 그라버는 한나래보다 4살 어린 1996년생으로 2018년 최고 랭킹 198위까지 올랐던 선수다. 메이저 대회에서는 2018년 프랑스오픈 예선 2회전 진출이 최고 성적이다. 한나래의 최고 랭킹은 2019년 116위, 메이저 대회 최고 성적은 지난해 호주오픈 본선 1회전 진출이다. 예선에서 3연승 하면 본선에 나갈 수 있다. 올해 호주오픈 본선은 2월 8일 호주 멜버른에서 개막하고, 예선은 여자부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남자는 카타르 도하에서 진행된다.



한나래와 그라버의 예선 1회전은 한국 시간으로 10일 밤 9시 안팎에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호주오픈 남자 단식 4강까지 진출했던 정현(163위·체니스스 후원)은 올해 호주오픈에는 불참했다. /연합뉴스

라소다 전 감독 별세...박찬호 SNS 사진 올리고 추모

한국인 1호 메이저리거 '코리안 특급' 박찬호의 은사자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의 전설인 토미 라소다 전 로스앤젤레스(LA) 다저스 감독이 93세로 별세했다. 라소다 전 감독은 7일(현지시간) 밤 심장마비로 숨을 거뒀다고 8일 AP통신이 보도했다. 다저스 구단은 성명을 내고 라소다 전 감독이 캘리포니아주 풀러턴 자택에서 심장마비를 일으켰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1976년 다저스 사령탑으로 부임한 라소다 전 감독은 1996시즌 심장병으로 중도 사퇴할 때까지 21년간 다저스를 지휘했다. 그는 감독 재임 기간 다저스를 1981년과 1988



박찬호는 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라소다 전 감독과 대화하는 사진을 올리며 추모했다. /연합뉴스



라소다 전 감독이 다저스를 이끌며 거둔 성적은 21시즌 3040경기 1599승 2무 1439패다. 그는 “내 혈관에는 (다저스의 상징 색깔인) 파란 피가 흐른다”라고 말할 정도로 다저스를 향한 애정이 깊었다. 라소다 전 감독은 1994년 다저스에 입단해 한국 선수로는 처음 메이저리거가 된 박찬호를 지도하며 남다른 인연을 쌓기도 했다. MLB 투수로서 통산 124승을 달성한 박찬호는 자신을 물심양면 지도한 라소다 전 감독을 양아버지 여겼다. 박찬호는 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라소다 전 감독과 대화하는 사진을 올리며 추모했다. (사진) 그는 “27년 동안 내게 사랑을 준 전설적인 야구인 라소다 감독님이 새로운 세상으로 가셨다”며 “마음이 무겁고 슬픔이 깊어지는 건, 그가 내게 준 사랑과 추억이 더욱 소중한 감사를 느끼게 해주기 때문”이라며 안타까워했다. 라소다 전 감독은 감독직에서 물러난 뒤 1997년 명예의 전당에 올랐고, 구단 고문으로 왕성한 활동을 했다. /연합뉴스

유석우 광주시핸드볼협회장 재선

“광주핸드볼 위상 높이겠다”

유석우(42·사진) ㈜성진홀딩스 대표가 다시 광주시핸드볼협회를 이끌게 됐다.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7일에 치러진 제3대 광주시핸드볼협회장 선거에 유석우 ㈜성진홀딩스 대표가 단독 출마해 당선됐다”고 10일 밝혔다. 유 당선인은 2017년 광주시핸드볼협회장으로 취임해 협회장기 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지속 개최하는 등 핸드볼 활성화에 힘썼다. 초등부에서 성인부에 이르기까지 핸드볼 저변 확대에도 힘을 쏟았다. 각종 지역 대회를 개최해 일반 학생들이 핸드볼 선수로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우수지도자와 저소득가정 우수선수 장학금 지원 등에 2억원 이상 재원을 투입, 광주핸드볼



유 당선인은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동반 성장을 위해 협회장기 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더욱 확대하고 행·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핸드볼 가족과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광주핸드볼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인들의 사기를 진작시켰다. 유 당선인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이 창단 이후 최고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SK핸드볼코리아리그에서 사상 첫 플레이오프 진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차승현 광주시복싱협회장 당선

“복싱인 품격·명예 되찾을 것”

차승현(50·사진) ㈜전예투 대표이사가 광주시복싱협회장에 당선됐다. 광주시복싱협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제3대 (통합)광주시복싱협회장 선거에 단독출마한 차승현 대표를 무투표 당선 결정했다. 차 당선인의 임기는 2021년 정기총회일부터 2025년 정기총회 전날까지 4년간이다. 차 당선인은 ‘공감하는 혁신’을 모토로 광주 복싱인의 품격과 명예, 정의를 되찾겠다는 목표로 회장 선거에 출마했다. ▲겸손하고 열의로 협회 운영 ▲저변확대를 통한 생활체육-전문체육 연계육성



차 당선인은 “중책을 맡겨주신 광주 복싱인들께 감사드린다”며 “공감과 혁신을 통해 모범적인 협회를 만들어 전문 선수에게는 꿈과 희망을, 생활체육동호인들에게는 건강과 자부심을 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이상호 스노보드 월드컵 예선 13위...시즌 첫 결선행

이상호(26·하이원리조트)가 2020~2021시즌 들어 처음으로 국제스키연맹(FIS) 스노보드 월드컵 예선을 통과, 13위에 올랐다. 이상호는 9일(현지시간) 스위스 스쿠올에서 열린 2020~2021 FIS 스노보드 월드컵 남자 평행대회전 경기를 출전 선수 67명 중 13위로 마쳤다. 이번 시즌 개막 이후 지난달 이탈리아 코르티나페조, 카레자 월드컵에 나섰다 예선을 통과하지

못한 채 각각 39위, 21위에 그쳤던 이상호는 이번 대회에선 예선 성적 1분 09초 51로 14위에 오르며 시즌 첫 결선행에 성공했다. 이상호는 결선 첫 경기인 16강전에서 안드레아스 프로메거(오스트리아)에게 0.54초 차이로 밀려 8강에는 진출하지 못했다. 이번 대회에선 남부부 이고르 슬루예프, 여자부 소피아 나디르시나(이상 러시아)가 우승을 차지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원더 우먼 1984
2관	신과함께-죄와 벌
3관	도굴
4관	원더 우먼 1984, 러브 액츄얼리
5관	원더 우먼 1984, 빅풋 유니버2: 패밀리가 떴다
6관	원더 우먼 1984
9관	조제, 걸
7관 씨네커피룸	안벽한 가족, 런 마라톤 결정을 해야해
8관 씨네커피룸	이웃사촌, 러브 액츄얼리

광주문화예술회관 소식

광주 국악상설공연
창작공연 작품공모

2021 광주국악상설공연 창작공연작품을 모집하오니 역량있는 국악공연에 관심이 있는 예술단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접수기간 | 2021. 1. 11.(월) ~ 1.20.(수)
접수방법 | 직접 방문 (10:00 ~ 17:00)
접수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공연지원과
문의 | 062-613-8379